

현대 한국 “개신교 문화” 담론의 의미*

이 유 나**

1. 머리말
2. 개신교와 문화의 관계
3. 개신교 문화 담론의 출현과 전개
4. 개신교 문화 담론의 의미
5. 맺는말

1. 머리말

문화라는 용어가 우리 주위를 떠돌고 있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로 일컬어지면서 다양한 영역에서 문화라는 용어가 넘쳐난다. 종교의 영역도 별반 다르지 않아서 개별 종교들이 문화를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종교문화라는 개념까지 출현했다.¹⁾ 본 연구는 문화 개념이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그에 관한 학문적 성찰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판단 하에, 개신교의 문화 담론에 주목하고 그 성격을 규명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²⁾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0-551-A00042]

** 건양대학교

1) 강돈구는 우리 사회에 문화의 용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여전히 성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종교문화의 의미를 모색하고 있다. 특히 종교와 문화, 종교적 문화가 혼재된 종교문화의 개념을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강돈구, “‘종교문화’의 의미”, <종교연구> 제61집, 한국종교학회, 2010, pp. 33-67.

2) 이 글에서 말하는 개신교 문화는 개신교 내에서 “기독교 문화”라고 일컬어진다. 이 글에서 기독교 문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개신교가 그리스도교(Christianity)의 한자 음역어인 기독교(基督教)를 점유하고 자신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현대 한국에서 개신교는 문화에 대한 관심을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종교다. 사실 문화에 대한 개신교의 관심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문화는 개신교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이며 오랜 신학적 담론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개신교 신학에서 문화와 복음은 서로를 위해 필요한 조건이다. 신이 인간으로 변하여 인간을 구원했다는 복음은 개신교의 가장 핵심적인 주장이며 이는 결국 문화 속에서 실현되어야 할 궁극적인 과제다. 문화는 복음을 전달하는 매개체이다.³⁾ 문화의 환경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개신교는 문화에 관심을 기울여 온 것이다. 또한 개신교인들은 복음이라는 절대적 가치를 어떻게 삶에서 적용할 수 있을지에 관심을 갖는다. 문화는 복음을 살아가는 장이기도 하다. 개신교인이 가진 절대적 가치는 문화라는 현실 속에서 드러나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 및 판단은 아주 중대한 과제이다.⁴⁾ 즉, 개신교인은 문화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살아가야 하기에, 복음과 문화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지금까지 종교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개신교 문화 담론에 관한 선행 연구는 찾기 쉽지 않다. 종교학자인 정진홍의 복음과 문화에 관한 오래된 글이 거의 유일하다. 그는 복음이 해야 하는 일이 문화와의 관계 구조를 도식화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자체를 되묻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개신교 또한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종교라는 점에서 개신교의 핵심을 묻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임무임을 강조하고 있다.⁵⁾

본 논문은 이러한 종교학적 선행 연구를 토대로 현대 한국 개신교의 문화 담론에 주목하고자 한다. 개신교 문화담론의 전개 과정을 따라가면서 개신교인들이 문화 담론 속에서 어떻게 신앙을 수립하고 정당화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과연 문화라는 개념을 통해서 개신교인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목표다. 이를 위해서 먼저 개신교와 문화의 관계에 대한 서구의 신학적 연구들을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2. 개신교와 문화의 관계

3) Millard J. Erickson, *Christian Theology*, Michigan: Baker Book House, 1996, p. 26.

4) 로버트 E. 웨버 지음, 이승구 옮김, 『기독교 문화관』, 서울: 엠마오, 1984, p. 24.

5) 정진홍, “복음과 문화의 종교적 이해”, <기독교사상> 제23집, 제9호, 대한기독교서회, 1979, pp. 21-30.

“그리스도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자세로 사람들이 문화의 현세성과 다원성에 등을 돌리게 한다. 문화는 과거의 많은 가치를 보존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은혜에 의지하도록 권하는 그리스도를 배척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도 종교적 문화가 낳은 자식이며, 그분은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어 양들을 돌보라고 하는데 사실 그들을 보호하려면 문화적 작업이 불가피하다.”⁶⁾

문화에 대한 연구로 잘 알려진 신학자 리처드 니버(H. Richard Niebuhr)의 진단은 결국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무한한 신을 인식하고 표현하고 전달하고 이해하는가 하는 역설이 곧 신학의 중심 문제라는 점을 잘 말해주고 있다.⁷⁾ 수많은 신학자들이 다양한 문화론을 제시했지만, 여기서는 가장 권위 있는 주장을 한다고 평가받는 리처드 니버와 폴 틸리히(Paul Tillich)의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리처드 니버는 유형화 방법론을 사용하여 복음과 문화의 관계를 파악한다. 그는 문화를 인간 활동의 총체적 과정과 그 활동으로 인한 총체적 결과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정의하는데, 이는 문명과 동의어로 사용된다.⁸⁾ 역사상 그리스도와 문화와의 대화는 크게 다섯 유형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이는 문화와 대립하는 그리스도(Christ against Culture), 문화에 속한 그리스도(Christ of Culture), 문화 위에 있는 그리스도(Christ above Culture), 문화와 역설적인 관계에 있는 그리스도(Christ and Culture in paradox) 마지막으로 문화를 변혁하는 그리스도(Christ the transformer of Culture)이다. 대립과 변혁의 반대되는 유형과 그 중간적 입장들을 취하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했다. 그리스도교의 역사 속에서 문화에 대한 인식은 다양했고, 그 과정에서 유형들의 결합과 갈등을 지속했다. 그렇다면 니버는 문화에 관한 어떤 태도를 지향하고 있을까. 니버는 문화의 실재가 복잡하기 때문에 많은 대화가 오가야 하지만, 결국 문화를 변혁하는 것이 이후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조심스럽게 제안한다. 니버의 이러한 주장은 그가 문화를 구체적인 현상으로 파악한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현상으로 파악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비판의 여지도 존재한다.⁹⁾ 그런데 흥미롭게도 문화를 논의하는 한국

6) 리처드 니버, 홍병룡 옮김, 『그리스도와 문화』, 서울: IVP, 2007, p. 120.

7) 배국원, “한국문화신학에 대한 방법론적 반성”, 《한국문화신학회 논문집》 제3집, 한국문화신학회, 1999, p. 205.

8) 리처드 니버, 위의 책, p. 112.

9) 김동건, “기독교와 문화의 바람직한 관계 설정에 관한 연구”, 《신학과 목회》 제25집, 영남신학대학교, 2006, p. 6.

개신교 신학자들은 거의 대부분 니버의 논의를 바탕으로 자신의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니버의 유형론과 그에 따른 해석은 가장 권위 있는 것으로 평가되면서 한국 개신교 신학자들에게 바로미터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문화 변혁을 주장하고 있다.¹⁰⁾

한편 톨리히의 문화론도 한국 개신교 신학자들에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문화는 종교적·초월적 성격을 가진다. 이는 종교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관심이 문화 속에서도 드러나고 있다는 말로 풀이할 수 있다. 어떤 궁극적인 관심이 그 안에 표출되지 않은 문화적 산물이란 존재하지 않는다.¹¹⁾ 따라서 문화가 드러나는 방식을 평가하기 보다는 그 내면에 어떠한 종교적 문법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생각에 근거해서 종교와 문화는 모두 같은 궁극적 관심의 두 가지 다른 표현 양식이며 “종교는 문화의 실체이고 문화는 종교의 형식”이라는 유명한 주장이 등장한다.¹²⁾ 그렇기 때문에 종교와 문화는 갈등하지 않으며 오히려 문화 속에서 궁극적인 관심을 드러내는 작업이 그의 신학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개신교에서는 이른바 문화 속에 드러나는 신율적(神律, theonomy) 문법을 찾아내는 신학적 방법론으로 이를 계승하고 있다. 특히 톨리히는 한국의 개신교 문화를 정립하려는 신학자들의 신학 작업에 기반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¹³⁾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현대 한국 개신교의 문화 담론은 어떤 계기를 통해 등장했으며 그 과정은 어떠한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3. 개신교 문화 담론의 출현과 전개

① 한국의 개신교 문화

10) 일레로 리처드 니버의 유형론은 오늘날 정설처럼 굳어졌다고 주장하는 신국원, “변혁주의 문화론의 신학적 근거”, 『기독교문화, 소통과 변혁을 향하여』,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5를 확인할 것.

11) Paul Tillich, *Theology of Culture*, ed. by Robert C. Kimball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59), p. 42.

12) 배국원, 위의 글, p. 208.

13) 종교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배국원은 한국문화신학에서 거의 모든 신학자들이 톨리히의 문화신학에 대한 요청을 근거로 삼고 있다고 진단한다, 배국원, 위의 글, p. 205.

한국 개신교의 문화 담론은 1960년대 들어서 등장했다. 이는 개신교의 정체성에 관한 물음에 기반을 둔 것으로서, 과연 한국에 개신교문화는 있는가라는 질문이 시작되었다.

“..표면적으로는 지난 2세기를 통해 교인들의 숫자도 기적적으로 늘었고, 교회와 또 그와 관련된 기관들도 많이 생겼으나, 이 땅에서 그리스도교는 아직도 이방문화로 남아 있고 한국의 전통문화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아직도 한국에는 그리스도교문화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 아직도 한국에는 그리스도교문화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표현이 정직한 표현일 것 같다. 한국의 전통문화와 그리스도교와의 만남에서 왜 창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 혹 일어나고 있다고 해도 왜 그렇게 미미한 정도인가?”¹⁴⁾

개신교는 한국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타종교와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며 교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등장하기 시작한다. 그렇기에 진정으로 ‘한국적’이라고 불리는 개신교문화가 있는지의 물음이 출현한다. 물론 개신교가 태생적으로 분명히 서구의 외래종교이지만 한국에 정착한 역사적 사실이 있으며 이는 곧 토착종교라고 불릴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하다. 그러나 개신교가 타문화에 정착하면서 일련의 상황화 혹은 토착화를 거치는 역사적인 사실을 간과한 채 서구적인 신학에만 기대어 개신교를 설명했기 때문에 여전히 한국적인 문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등장하는 것이다. 한국 개신교의 정착과 그 전개과정 속에서 한국의 전통문화를 간과한 채 서구의 잣대로 스스로를 해석하였다는 반성은 이후 한국적 개신교 문화 모델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된다. 이는 한국의 전통문화에서 추출한 독특한 개념들을 이용해서 이른바 한국적인 신학을 정립하려는 특징을 보인다.

사실 이런 생각은 1960년대 세계 개신교의 신학적 흐름과 관련이 있다. 당시 ‘하느님의 선교’(Missio Dei)라는 개념의 출현과 더불어 교조주의적 선교방식에 대한 반성이 일기 시작하고 세계 교회 일치 운동 등이 생기면서 타종교와의 대화는 필수 불가결하다는 인식이 출현하기 시작했다. 이후 신학자들의 논의가 지속되면서 타종교와의 대화의 단계를 넘어선 인류의 공존이 바로 신이 원하는 뜻이자 성서적이라는 해석이 출현한다. 이러한 배경 하에 한국 개신교에서도 개신교 문화 정립에 대한 관심이 생겼으며 일련의 신학자들을 중심으로 한 신학적 담론들이 출현한 것이다.

개신교 문화 담론의 특징은 이른바 한국 전통 문화 속에서 개신교 신학을 재정

14) 한신대학교 신학부 편, 『기독교와 문화』, 오산: 한신대학교 출판부, 1998, p. 338.

립하는 것이다. 즉 한국의 독특한 상황 속에서 등장하는 신학이 한국적 신학이자 그것이 바로 개신교 문화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개신교의 하나님이 서구 개신교의 해석보다는 한민족의 하나님 신앙, 즉 한민족의 궁극적인 관심에 대한 역사 속에서 이해할 때 그 성격이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주장은, 이른바 토착화 신학의 방향성을 잘 보여준다.¹⁵⁾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는 기존의 신학에서 서구의 신학을 기본 바탕으로 한 것과는 달리 샤머니즘에서부터 불교, 유교, 동학에 이르기까지 한국에 등장한 종교들에 관심을 갖는 일이 우선 중요하다. 율곡 이이의 성(誠)에 대한 이해가 한국인이 개신교의 성육신을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윤성범의 성(誠)의 신학, 풍류도가 유교·불교·도교를 포괄하고 있으며, 이는 ‘한·멋진·삶’이라는 삼중구조를 가진 한국인의 포괄적인 영성이라고 주장하는 유동식의 풍류신학 등이 한국적 개신교문화 정립의 시초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한국의 전통문화, 즉 타종교에서 한국적인 성격의 단초를 찾으려는 이러한 작업들은 개신교 내부의 갈등을 초래하기도 한다. 한국 개신교 문화를 정립하고자 하는 신학자들의 노력이 오히려 개신교의 독특성, 즉 복음의 고유성을 훼손하고 이질적인 타종교들과의 무분별한 혼합을 이끈다는 모종의 혐의를 받기도 했다.¹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종교의 개념들을 중심으로 이른바 한국적 개신교 문화를 정립하려는 노력들은 토착화 신학을 거쳐 문화신학 등의 이름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② 개신교와 대중문화

한국 개신교와 전통 문화와의 관계, 이른바 토착화 관련 논의들이 지금까지 중요한 논의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대중문화에 대한 논의들이 1990년대에 들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한국의 대중문화는 90년대에 들어서면서 활발한 활동을 보이는 매체들의 힘을 빌어 급속도로 확산되었고 이는 대중에게 큰 영향력을 미쳤다.¹⁷⁾ 미디어의 발달로 이전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대중문화 또한 개신교인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문화가 복음이 유통되는 장이자 인

15) 김경재, “한국문화사의 측면에서 본 궁극적 관심의 성격과 한국 신학의 과제”, 『한국문화신학』,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3, p. 111.

16) 일례로 ‘불교적 기독교’를 주장한 변신환은 감리교단으로부터 신앙고백 제출을 요구받기도 하고 결국 종교재판을 통해 감리교신학대학에서 출교당하기도 했다.

17) 박종균, 『기독교와 대중문화의 이해』,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간이 가꾸어야 할 신의 선물이라면 지금의 대중문화를 과연 어떻게 설명하고 이에 대응해야 할 것인가. 더불어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대중문화에 영향을 받는 개신교인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대중문화에 관해서는 신학자들과 더불어 개신교 관련 단체 종사자들이 참여하여 공동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대중문화에 대한 그들의 인식은 어떠한가. 우선 대중문화는 포스트 모던적이다. 포스트모던의 출현은 더 이상 특정한 혹은 획일적인 기준으로 세계를 보지 않고 다양성이 환영받는 시대임을 의미한다. 이는 곧 복음이라는 특정한 기준을 가진 개신교인들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할 난제가 되었다. 대중문화가 포스트모던뿐만 아니라 뉴에이지(New Age) 등의 모호한 개념과 결합되면서 더욱 강력해지자 개신교는 이를 반드시 넘어야 할 위기이자 도전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대중문화는 개신교의 동지가 아니라 적이 되었다. 대중문화에 대한 개신교의 관심은 『대중문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등의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특정한 관점을 공유하고 있다. 개신교인들이 올바른 문화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은 혼란스러운 대중문화에 관한 시급한 판단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비롯한다.¹⁸⁾

이러한 생각은 1992년 미국의 록그룹 뉴키즈온더블록(New Kids on the Block)의 공연 때문에 수면 위로 떠올랐다. 청소년들이 대다수 공연을 관람하는 가운데 한명이 죽고 50여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공연에 대한 개신교의 평가는 그 날을 세우기 시작했다. 개신교는 공연하는 록그룹이 인류를 유혹하기 위해 악마가 보낸 사탄이라고 평가하면서 적극적인 공세를 펼쳤다.¹⁹⁾ 대중문화는 죽음과 폭력, 음란과 공포, 죄악과 타락, 사탄과 악마와 관련된 것이기에 이는 개신교와 반대되는 것이자 동시에 청소년을 해칠 수 있는 사회악(social evil)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문화는 개신교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를 위해서도 개선해야만 한다.²⁰⁾ 이 당시 문화운동을 주창하는 그룹인 낮은 울타리와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하 기윤실)은 이러한 주장을 지속적으로 확대 유포했다.²¹⁾ 낮은 울타리가 청소년

18) 개신교 신학자들은 대중문화(Popular Culture)를 대부분의 경우 대중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문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다.

19) 전명수, 『뉴에이지운동과 한국의 대중문화』, 서울: 집문당, 2009, p. 216. 당시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미국의 다양한 서적들이 다수 번역 출판되어 유통되었다.

20)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문화전략위원회 엮음, 『대중문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1998.

21)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서울대 기독교수성경공부모임을 모태로 손봉호 교수를 주축으로 한 개신교 시민 단체이다. 1987년 12월에 창립되었으며 발기인들은 대학교수 및 의사, 법조인 등이었다.

년층을 계도하는 방식이었다면,²²⁾ 기운실은 연소자 이용불가 신청 등의 법적 제재를 가하는 방식이었다. 서태지와 아이들, 싸이, 박지윤, 박진영 등 대중가수들의 음반이 출시될 때마다 그들의 음악이 선정적이고 음란한 가사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청소년에게 해롭다는 주장을 하였고 방송 불가 및 청소년 이용 불가 판정을 이끌면서 여론의 힘을 얻어 갔다.²³⁾ 기운실은 영화 <거짓말>, <죽어도 좋아> 등 또한 과도한 성적 묘사라는 혐의를 들어 문제를 제기했고 논란을 야기하면서 개신교 윤리를 실천하는 단체가 아닌 사회 정화를 위한 시민운동의 주축으로 비춰졌다. 즉 기독교윤리실천이라는 한 종교의 윤리적 잣대가 청소년 보호를 통한 사회 정화의 이상 아래 감춰지게 된 것이다. 이제 대중문화는 개신교의 적이며 동시에 사회가 경계해야 할 대상이 되었다.

개신교 단체들이 대중문화 정화 구호를 외치며 종교 밖에서 활동했다면, 신학자들은 종교 내부에서 활동하면서 문화에 대한 공통된 견해를 제시했고 이를 종교 공동체에 유포했다. 그들은 대중문화 전반을 뉴에이지, 사탄, 악마, 우상숭배 등과 결부시키면서 신자들의 주의를 끊임없이 요구해왔다. 대중문화는 신의 뜻을 거스르는 인간의 영역이며 개신교와 관련되지 않는 문화이기에 마땅히 신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판단 하에 신학자들은 대중문화를 구성하는 다양한 분야들을 점검하면서 비판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특히 한국 대중문화의 특성을 이식된 외래문화, 제국주의 문화, 포스트모더니즘적인 문화, 성 담론에 치중한 문화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중문화는 비인간화되고 물화된 왜곡된 문화이자 상품화된 소비문화이다. 대중문화는 일방적이기 때문에 수용자들은 비판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은 채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고 평가한다.²⁴⁾

22) <낮은 울타리>는 월간 평론지로서, 이와 관련된 사람들은 대중강연과 평론을 통해서 대중 음악에 관해 비판했다. 특히 서태지와 아이들이 등장했을 당시에는 음악을 거꾸로 들으면 사탄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이른바 ‘백워드마스킹(BackwardMasking)’을 주장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신상언의 『사탄은 마침내 대중문화를 선택했습니다』는 이들의 주장을 대변하는 책으로 당시 청소년들에게 폭발적인 관심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상언의 주장은 꽤 적극적이며 선동적이었다. 일례로 그는 뉴에이지 운동이 1960년대에 서구 문명사회에서 진화론을 토대로 발전한 세속적 인본주의와 동양의 종교를 토대로 발전한 세속적 신비주의가 접목되면서 새로운 형태로 기독교적 세계관을 혼란시키는 사탄의 고차원적인 휴머니즘 운동이므로 뉴에이지보다 우수한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 적군(뉴에이지 운동)의 사기를 무너뜨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상언, “뉴에이지 운동은 과연 교회에 영적 위기를 줄만한 정도인가?”, <활천>, 활천사, 1992년 10월호(통권 제468호), pp. 15-16. 서태지와 관련된 당시 논란에 관해서는 승현민, “서태지와 문화읽기”, <시대와 민중신학>, 1995년 봄호, pp. 111-126을 참조할 것.

23) 이에 관해서는 이원석, “기운실의 대중문화 논쟁-‘표현의 자유’논쟁을 중심으로”, <문화과학> 제56호, 문화과학사, 2008, pp. 341-359를 참조할 것.

그렇기에 교회는 성경적인 세계관에 확고하게 근거하여 대중문화의 부패한 켠꺼기들을 걸러내는 정수기의 역할을 담당해야 하고, 교회가 갖고 있는 세계관의 안경은 인간 문화의 부정적 영향으로 인해 흐려지기 때문에 항상 그 안경을 성경적 세계관으로 닦아내는 작업을 해야만 한다.²⁵⁾ 대중문화에 대한 개신교인의 책임과 의무가 생기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중문화의 본질적인 성격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대중문화는 이른바 전투의 영역이므로 누가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격을 바꿀 수 있다. 다음의 인용문은 개신교의 이러한 이해를 잘 보여준다.

“사탄(Satan)은 대중매체를 이용해서 폭력과 살인, 성적 방종과 퇴폐, 파렴치와 무자비의 내용을 전달하고, 무당과 점성술, 역술을 전통문화의 이름으로, 현대사조의 이름으로 뉴에이지 사상을 전달한다. 그러나 이 대중매체를 신앙인이 이용하면 그 내용을 생생적이고 건전하며 신앙적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매개체로 만들 수 있다.”²⁶⁾

이렇듯 대중문화에 개신교의 아이디어를 주입하면 대중문화의 부정적인 측면을 없앨 수 있다는 생각은 대중문화를 변혁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더욱 명확해진다. 개신교 문화 담론에서 신학자들의 공통된 주장은 대중문화를 변혁해야 한다는 것인데, 변혁이란 대중문화 자체를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물을 바꾸어서 개신교 중심의 문화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듯 대중문화를 개신교 문화로 바꾸는 것은 효과적인 선교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²⁷⁾ 이러한 배경 하에 개신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중문화 매체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이후 개신교 방송국, 라디오, 신문 등이 출현하면서 대중문화를 통한 선교가 본격적으로 등장한다.

한편 최근에는 ‘기독교 문화학’이란 이름하에 스스로를 신학에 속하지 않은 객관적인 학문 분야로 규정하는 그룹들이 등장하고 있다. 개신교 세계관을 기반으로 문화를 비평하는 것은 이제 신학의 몫이 아니라 인문학적 임무이며 이는 문화학의 영역에 속한다는 주장까지 이어지고 있다.²⁸⁾

24) 통합윤리학회 편, 『21c의 도전과 기독교문화』,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1998.

25) 최형근, “한국교회의 선교와 대중문화”, 『기독교 문화와 한국문화』,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8. p. 198. 개신교의 이러한 주장과는 달리, 한국 천주교에서는 인간이 초월적인 것을 추구하는 본성을 갖고 있지만 기성 종교와 문화가 이런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대체물을 찾는 것이며 이는 기성 종교의 반성을 요구한다는 주장이 등장한다. 이에 관해서는 박문수·주원준, 『한국의 종교문화와 뉴에이지 운동』, 서울: 바오로딸, 1998.

26) 김영한, 『21c 문화변혁과 개혁신앙』,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7. p. 190.

27) 윤철호, “기독교와 문화의 관계에 대한 유형론적 고찰”, 《장신논단》 제23집,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 사상과 문화연구원, 2005, p. 131.

4. 개신교 문화 담론의 의미

한국적 개신교 문화에 대한 신학적 이론 정립과 대중문화 비평을 통한 개신교 문화 형성은 모두 새로운 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다름이 아니다. 이 두 가지 흐름 모두 대안문화(alternative culture)를 지향하고 있다. 사실 새로운 문화를 꿈꾸는 것은 개신교가 가진 독특한 종교적 특성이기도 하다. 앞서 살펴보았듯 개신교는 복음을 전하고 유지하기 위해 문화에 관해 발언해왔다. 새로운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기존의 문화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 특징을 파악해보면 한국 개신교 문화 담론의 의미가 드러난다.

지금까지 살펴본 한국 현대 개신교 문화 담론은 이분법을 전제하고 있다. 전통 문화와 대중문화는 극복해야 할 것으로 모두 부정적인 것으로 평가한다. 한국에 개신교 문화를 만들기 위한 신학적인 노정, 이른바 토착화 신학이라고 불리는 담론들에서 타종교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한국적인 신학을 정립하기 위해서 전통문화를 담당하는 타종교와의 만남은 중요하다. 그렇기에 신학자들은 유교, 불교, 도교, 샤머니즘뿐만 아니라 동학, 원불교 등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신학적 논리를 구축하려 한다. 그러나 개신교 문화를 구축하고자 하는 신학 작업에서 타종교는 대화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아이디어의 원천이다. 타종교의 독특한 개념은 개신교의 신학적인 논리를 정당화하는 수단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의 토착화는 토착 종교의 신학화로 변질될 우려가 존재한다.²⁹⁾ 한국적 개신교 문화 만들기는 매우 진지한 고민이지만 그 진지함이 자칫 일방적인 횡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하고 있다. 개신교 문화 만들기의 기저에는 항상 다음과 같은 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그리스도교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전통문화 속에 있는 부정적인 요소를 승화시키는 일이다. 이미 이 부정적인 요소들은 이 땅에 들어온 그리스도교의 체질과도 습합된 것이다. 무속의 개인주의적이고 현세적인 기복신앙, 유교의 배타주의, 불교의 타계도피주의, 그리고 꼭 한국전통종교의 유산이라고만은 할 수 없는 이원론적 사고 등등이 그 대표적인 요소들이다. 우리 민족사의 악순환의 뿌리가 여기에 있다. 이 땅에 들어온 이질적인 그리스도교 문화는 이런 악순환의 요소에 영합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선한 요소로서 대체해 갈 수 있어야 한다.”³⁰⁾

28) 이러한 적극적인 주장을 펼치는 신응철, “기독교인문학과 문화학: 기독교인문학의 관점에서 본 기독교문화학의 학(學)적 이념과 목표를 중심으로”, 《기독교철학연구》 제10호, 백석대학교 기독교인문학연구소, 2008. pp. 69-103을 참조할 것.

29) 배국원, 앞의 글, p. 201.

실제로 신학자들의 담론 속에서 신학적 전이해로서의 타종교의 특정한 개념들은 유용하지만 타종교 자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진 않는다. 개신교의 독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타종교 위주의 문화는 대체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개신교의 대중문화 비평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대중문화를 사탄, 악마 등의 부정적인 개념으로 낙인찍으면서 이해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제거해야 할 악으로 인식한다. 이는 대중문화의 다양성은 고려하지 않은 채 비평을 위해서 부정적인 면만을 보는 것일 수 있다. 물론 신학이 객관적인 기술(description)을 지향하는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지적은 부당할 수 있다. 신학은 가치판단을 위한 학문이고 그렇기에 객관적이지 않다는 평가는 옳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신학의 객관성 부재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 담론을 통해 드러나는 개신교의 문화 인식을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분법적인 구별에서 차이는 우월의 논리로 바뀌기 쉽다. 전통문화와 대중문화를 부정적인 것으로 파악할 때, 이는 대화의 상대가 아니라 경쟁과 정복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소통의 부재는 자의적인 해석을 낳고 이는 결국에는 종교의 게토화(ghetto)를 초래한다. 실제로 최근 안티 기독교 진영에서는 대중음악, 뉴에이지 음악 등을 악마와 사탄의 흥제로 매도하는 개신교에 대해 비난하고 있다. 개신교의 대중문화 읽기가 결국 스스로의 독단과 배타성을 드러내는 행위라고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³¹⁾

이분법적 문화 이해는 결국 문화의 종교화를 추구하는 개신교의 욕구를 드러낸다. 더 명확히 말하자면 문화를 복음과 일치시키려는 욕구이며 이는 문화 ‘변혁’이란 이름하에 등장하는 개신교 문화담론의 기저에 자리하고 있다. “변혁주의의 진정한 의의는 한국문화 속에 내재한 부정적인 문화형식을 긍정적인 문화형식으로 변혁시킨다는 문화 창조에 있다.”는 주장은 문화를 논하는 개신교 신학자들 모두가 공유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³²⁾ 그러나 문화를 변혁하자는 주장이 실천으로 이어지진 않는다.

개신교 대안 문화를 주장하는 신학적 담론과는 다르게 실제로 이른바 개신교 문화로 일컬어지는 실천이 나타나고 있다. 현실 속에서 개신교의 문화 담론과 실천은 그 방향이 다르다. 문화를 복음화하려는 개신교 담론의 욕구와는 달리, 실천

30) 한신대학교 신학부 편, 앞의 책, p. 335.

31) 이진구, “최근 한국사회의 안티기독교 운동과 기독교의 대응 양상”,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38호, 한국기독교역사학회, 2013년 3월, p. 64.

32)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편, 『예수 그리스도와 문화』,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출판국, 1991, p. 69.

을 살펴보면 복음의 문화화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실천의 측면에서 보자면 담론이 아니라 대중문화가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사탄·악마와 관련 있다고 평가하던 록(Rock)이나 뉴에이지(New Age) 음악들이 개신교 음악(Contemporary Christian Music)에 등장하고, 청년들을 중심으로 한 의례에서 적극적으로 사용된다. 대중에게 친숙한 의례의 시도로서, 대중음악 및 영화들을 상영하는 일도 있다.³³⁾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움직임이 개신교 내부의 문화인지 혹은 대중문화의 한 양상인지에 관한 평가도 이루어지지 않으며 실제로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도 여전히 모호하다. 신학자들의 문화 담론은 여전히 대중문화를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실천의 몸짓이 지속되는 현실 속에서 문화 개념은 부유하고 있다. 공동체 속 실천은 설명하지 않고 대중문화 비평을 하고 있는 사이, 판단은 결국 신도 개인의 몫으로 남는다.³⁴⁾ 개신교 문화 담론과 실천의 괴리 속에서 오히려 지금의 문화가 가진 다양성을 엿볼 수 있다. 문화는 파악하려 해도 파악할 수 없는 다양성의 면모를 지닌 채 또 다른 담론들을 요청하고 있다.

5. 맺는말

지금까지 현대 한국 개신교의 문화 담론을 파악하고 그 성격을 규명해보았다. 논의한 내용을 요약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현대 한국 개신교 문화 담론은 1960년대 들어서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일련의 신학자들은 한국 개신교 문화는 과연 있는지에 대한 신학적 반성 속에서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전통문화 특히 종교 영역에서 이른바 한국적인 요소들을 찾아내어 신학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통해 한국적 개신교를 구축하는 작업들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이후 1990년대에 들어서 개신교는 대중문화에 관심을 갖게 된다. 강력한 파괴력을 미치는 대중문화는 새로운 사조인 포스트모던 및 뉴에이지 등과 관련된 것으로서 폭력, 음란, 퇴폐 등의 성격을 가졌으며 이는 곧 사탄과 악마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대중문화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개신교 안팎에 지속적으로 유포되었고

33) <조선일보> 2005. 11. 24. A21면.

34) 실제로 네이버 지식IN “뉴에이지 음악과 기독교” 항목에는 개신교인인데 록음악이나 뉴에이지 음악을 들어도 되는지 등에 관한 질문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으며, 신자들 간의 논의 및 비신자들의 비난이 등장한다.

결국 문화를 변혁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지게 된다. 개신교문화를 정립하거나 대중문화를 비평하거나 모두 변혁의 모티프를 담고 있다. 변혁의 주장은 한편으로 전통문화를, 다른 한편으로 대중문화에 관한 이분법적인 태도 때문에 가능했다. 변혁은 결국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인 것으로, 악을 선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러나 단일한 가치보다 다양한 가치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현대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개신교 문화 담론 속에서 문화에 대한 다양한 태도를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무엇보다도 개신교의 실천 영역 속에서 등장하는 대중문화의 영향력에 관한 담론이 가장 먼저 요청되고 있다.

본 연구는 개신교의 실천 속에서 등장하는 문화에 관해서는 자세하게 논의하지 않았다. 담론과 실천을 함께 다룬다면 본 연구가 의도한 개신교에서 문화를 무엇이라고 규정하는지가 더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지만, 개신교 실천 영역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다루지 못했다. 개신교 실천 영역은 아쉽게도 추후의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주제어: 개신교, 문화, 담론, 토착화, 문화신학, 대중문화

원고접수일: 2013년 5월 20일

심사완료일: 2013년 6월 1일

게재확정일: 2013년 6월 10일

참고문헌

<단행본>

- 강영안 외, 『대중문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1998.
- 김영한 외, 『사이버문화와 기독교문화전략』, 서울: 콤파출판사, 1999.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부편, 『예수 그리스도와 문화』,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출판국, 1991.
- 문화선교연구원 엮음, 『기독교문화와 상상력』,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6.
- 박문수·주원준, 『한국의 종교문화와 뉴에이지운동』, 서울: 바오로딸, 1998.
- 박종균, 『기독교와 대중문화 이해』,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 신상언, 『사탄은 마침내 대중문화를 선택했습니다』, 서울: 낮은올타리, 1992.
- 임성빈 엮음, 『기독교문화와 한국문화』,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8.
- 임성빈 엮음, 『경제위기를 넘어선 기독교문화』,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1999.
- 이계준 역, 『폴 틸리히 강연집 文化와 宗教』, 서울: 전망사, 1984.
- 이문균, 『포스트모더니즘과 기독교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 이승구, 『기독교세계관이란 무엇인가』, 서울: SFC, 2005.
- 장남혁, 『한국문화 속의 복음』,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10.
- 전명수, 『뉴에이지 운동과 한국의 대중문화』, 서울: 집문당, 2009.
- 조인서, 『기독교와 문화』, 서울: 한울출판사, 1996.
- 최인식, 『예수와 문화』,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6.
- 통합윤리학회 편, 『21세기의 도전과 기독교문화』,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1998.
- 프레드리카 매투스 그린 외, 김미연 옮김, 『세상을 정복하는 기독교문화』, 서울: 이레서원, 2008.

<국내 논문>

- 강돈구, “종교문화의 의미”, 《종교연구》, 제61집, 한국종교학회, 2010.
- 강현두, “대중문화의 주요개념”, 『대중문화 이론』, 서울: 민음사, 1984.
- 김경재, “기독교적 대항문화의 정립과 방법론”, 《복음과 상황》, 7·8월호, 1991.
- 김영한, “문화: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기독교적 조명 - 사조적 측면에서”, 《신앙과 학문》, 제1집 3호, 기독교학문연구회, 1996.

- 김동건, “기독교와 문화의 바람직한 관계 설정에 관한 연구”, 《신학과 목회》, 제25집, 영남신학대학교, 2006.
- 박종균, “기독교와 대중문화”, 《기독교문화연구》, 제3집, 한남대학교 기독교문화연구소, 1998.
- 배국원, “한국문화신학에 대한 방법론적 반성”, 《복음과 실천》, 제23집, 1999.
- 서정우, “한국 대중문화의 역사적 고찰”, 『산업사회와 대중문화』, 정신문화연구소, 1982.
- 송태현, “전자영상매체 시대의 기독교 문화”, 《신앙과 학문》, 제4집 1호, 기독교학문연구회, 1999.
- 손원영, “대중문화와 종교교육의 과제: 기독교 대중음악과 종교교육”, 《종교교육학연구》, 제17집, 한국종교교육학회, 2003.
- 신응철, “대중문화의 이해와 비평 그리고 소통- 기독교적 대중문화 비평의 관점에서”, 《해석학연구》, 제18집, 한국해석학회, 2006.
- 승현민, “서태지와 문화읽기”, 《시대와 민중신학》, 1995년 봄호.
- 이원석, “기윤실의 대중문화 논쟁-‘표현의 자유’ 논쟁을 중심으로”, 《문화과학》 제56호, 문화과학사, 2008.
- 이진구, “최근 한국사회의 안티기독교 운동과 기독교의 대응양상”,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38호, 한국기독교역사학회, 2013.
- 윤철호, “기독교와 문화의 관계에 대한 유형론적 고찰”, 《장신논단》 제23집,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사상과 문화연구원, 2005.
- 정진홍, “복음과 문화의 종교적 이해”, 《기독교사상》 Vol. 23 No. 9, 대한기독교서회, 1979.

<국외 단행본>

- Millard J. Erickson, *Christian Theology*, Michigan: Baker Book House, 1996.

<Abstracts>

Significance of Protestant Discourses on Culture in Contemporary Korea

Lee, You-Na(KonYang University)

This article analyzes Protestant discourses about culture to elucidate its significance. As the use of the term “culture” became predominant, Protestantism has constructed and justified its religiosity in relation with culture. Traditionally, culture was a very important subject in Protestantism, and therefore it has the long-standing theological discourses. This paper first examines the ways in which the Western theology have considered the relation between Protestantism and culture. Then it focuses on how Protestant discourses about culture emerged and developed in Korean history. Scholars of Protestantism in the 1960s made efforts to define the culture of Korean Protestantism, which included the studies of “indigenization” and “Cultural Theology.” The 1990s saw the emergence of Protestant discourses about popular culture that insisted on transformation of popular culture. The Protestant discourses about culture presuppose a binary distinction between Christianity and culture, which claim that both traditional and popular cultures are negative and they should be overcome. However, such discourses entail the risk of a lack of communication only to ghettoize the religion.

Key Words: Protestantism, Culture, Discourse, Indigenization, Cultural Theology, Popular Culture